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7. 시가서

D.P.Joshep 2010-06-07 22:54:04

조회 21 스크랩 0

성경에서의 인물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들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믿음의 의인들이 쓴 글들이 있는 데, 그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성서를 '시가서'라 칭합니다.

첫 번째로 욥기는 '에스더'서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에 '욥기'서의 시대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는 시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욥기'서의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욥기'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고난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는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신정론의 문제란 쉽게 생각하면, 현실 속에서 왜 주를 믿는 의인들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편 73편에서도 보면 악인은 훗날 무엇인가를 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결국에는 편안하게 죽는 것에 대한 불만이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쓰여 있고, 평소 주를 믿으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많이 갖는 의문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줄거리는 '욥'이라는 그 시대에 최고의 의인이라 칭송받는 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내기를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대의 의인인 '욥'에게 환란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욱하는 지에 대해 내기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응하시고 마귀에서 욥의 몸을 건들지 말되, 다른 것들을 쳐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자식들은 모두 죽고 그의 재산들도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욱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에 승복하지 않는 마귀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욥에게 직접적으로 환란이 찾아온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욱할 것이라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마귀에게 욥의 몸에게도 환란을 주어보라고 허락합니다. 그리하여 욥은 병에게 걸리게 되고 그것을 보다 못한 욥의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욱설을 퍼붓지만, 욥은 결국 하나님께 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본 친구들은 통곡을 하면서도 욥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냐며 추궁을 당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욥은 결국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어 욥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할 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라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세상의 지식으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세상적인 난해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에 욥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욥의 대화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들의 집합입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이라는 한 책으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섯 권의 독립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구약의 모세오경의 주제를 기준으로 하여 5권으로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 중에서 시편 90편은 모세시대 쓰여진 '시'인 반면에 시편 137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다양한 시대의 시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들은 다윗시대를 전후해서 쓰여진 시들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 1권으로써 창세기의 내용인 인간과 창조를 기준으로 모아놓은 시입니다. 그리고 제 1권은 다윗이 편집하였습니다. 제 2권과 제 3권은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아 왕이 편집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 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로 출애굽기의 내용인 해방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9편의 내용인 제 3권은 레위기의 내용으로써 예배와 성소에 대한 내용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를 제 4권으로써 민수기 내용의 광야와 방황에 대해서 모아 놓았고, 시편 107편부터 끝까지를 마지막 제 5권으로써 신명기의 말씀인 말씀과 찬양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를 모아놓았습니다. 시편 제 4권과 제 5권은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가 편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유형별로 모아져 있기에 정형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머지 시가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입니다. 내용적인 시기로 볼 때는 아가서가 가장 먼저인데,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슬라미 여인에 대해서 쓴 성서입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여서 미혼 남녀들이 읽으며 힘들어하는 성서이기도 하는 데, 그만큼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사랑들을 보여주는 성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써놓은 성서입니다.

잠언은 중년 시절의 솔로몬이 쓴 성서인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와 교훈들을 알려주는 성서입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쓰여진 성서로써, 인본주의적 삶의 실패와 헛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 자신이 상당히 인생 실패자인 것인 양 쓰여진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의 삶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인생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교훈해줍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하늘 아래에 사는 인생 가운데의 모든 가치들은 헛됨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